**용기를 얻었다. 담대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 것 같았다.** 그 날부터 내 머릿속에 각인된 생각들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다. '왜 이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까?'라는 질문이 나를 슬프게 했다. 나는 그 질문들을 떠올리며 나를 한심해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 나는 나의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그 때 깨달았다. 나에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일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해보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한 거야'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포기했었어. 내가 해온 일들을 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해내지 못 할 때가 많았고, 나는 그것들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었지.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하며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었지 뭐야?' 하지만 포기라는 것이 나의 미래를 위한 일인지도 모르고, 나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하는 존재인 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내가 할 일들로 나를 채웠고, 그 시간을 내가 살아왔던 시간처럼 살아가게 되었다.